**부활 제4주일(2018년 4월 22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제가 일하는 미국 성당에서 주일학교에 제가 가끔 수업을 합니다. 수업 중에 한 번은 착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하는 시편 23편을 설명하면서, 양떼와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었죠.

 양들은 항상 목자의 보살핌을 필요로하고, 그것이 목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항상 양들을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고, 맹수로 부터 지켜준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양떼라면, 그럼, 착한 목자는 누구일까요?”하고.

 아이들이 힘껏 대답합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착한 목자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한 여자 아이가 뭔가를 한참 곰곰이 생각하고는, 손을 번쩍 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양들이고, 예수님이 착한 목자시면, 신부님은 ‘양치기 개’네요!” 헐~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참 고맙고, 마음의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착한 목자로, 그리고 하느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양떼로 자주 비유됩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의 그 당시 생활에서 유래한 이야기였습니다.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치고 살았죠.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양치는 목동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양이라는 동물이 참 재미있는 동물입니다. 겉으로는 온순해 보이지만, 그렇게 미련하고 고집스럽고 거칠고 아둔하다고 합니다. 불길을 보면 그것이 뜨거운지 알면서도 그냥 뛰어들고, 낭떠러지에 길이 없는 곳에서도 그냥 직진 밖에 모른답니다. 넝쿨에 걸려도 그저 앞으로만 나갈려고 발버둥치니까 나중에는 꼼짝 못하고 갇혀버립니다.

 고집도 무지 세고. 절대 바른 길을 갈 줄 모른다고 합니다. 항상 엉뚱한 길로만 가려고 하고, 절대 혼자서는 집을 찾아 오지도 못한답니다. 한 번 아니면 절대로 아닌 거지요. 절대 남의 말도 안듣는 답니다. 흡사 누구와 닮지 않았습니까? 꼭 우리 인간들과 비슷하죠? 고집 세고, 말 안듣고, 늘 엉뚱한 길로만 가려고 하고. 길 잃고 헤매기 일쑤고.

 그런데, 또 재미있는 사실은, 이 양들이 따르는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목소리. 바로 목자의 소리는 그렇게 잘 알아듣고, 따른답니다. 그것도 자기 목자만 따릅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노련하게 이끌고, 늘 편안하고 안전하게 인도하고, 양 한마리 한마리의 성격을 잘 알고 사랑으로 대한답니다. 그래서 양들은 자기 목자를 따르는 것이지요. 목자를 따라가면 편하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그 아둔하고 고집센 짐승들도 다 아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 양떼가 섞여서 풀을 뜯고 있다가도, 자기 목자가 노래를 부르면서 가면 양들은 각자 자기 목자만 따라서 딱 갈라진답니다. 희한하죠.

 양들과 목자의 비유가 예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착한 목자가 양들을 이끌 듯이 우리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양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여기고 그냥 늘 따라가면서 살다보면, 내 삶은 안전합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맙고 감사하고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양들인 우리들 하나 하나를 잘 알고, 늘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당신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십니다.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그분이 우리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저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서, 우리는 그 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살기 너무 바쁘고,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데로 하고 사니까, 내 고집만 부리고 사니까 그 분의 목소리를 알아 듣지 못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보살핌을 받으려면, 그 분의 양떼에 속하면 됩니다. 그 분의 양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목자이시고, 그 분의 양떼는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미사와 성사 생활을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 공동체의 멤버가 되면, 그 분의 양떼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분의 양떼에 속하게 되면, 그 분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착한 목자가 양들을 진심을 다해서 보살피듯이, 우리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 한마리라도 열심히 끝까지 찾아나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일이 닥치든지, 길을 잃어버리고 어떤 험한 길을 가든지,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말고, 목자이신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 분 양떼의 일원이 되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늘 그 분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선택입니다.